

本校와 分校와의 관계

金 水 日
(延世大 敎育學)

1. 分校의 問題

서울특별시 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 분교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이에 관한 갈등 현황에 대한 논의들이 대학 밖에서, 그것도 지방 분교에 한정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사는 지방 분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정립과 아울러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진술됨이 요구된다.

single campus에서 multiversity와 multi-campus에서 campus 사이의 대등한 관계와 종속적인 측면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한국 지방 분교의 현황적인 문제를 쉽게 찾게 된다.

한국의 지방 분교가 당면한 문제를 찾기 위한 준거로서 미국의 멀티캠퍼스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캠퍼스별 균형 발전의 준거

- 새로운 캠퍼스는 오래된 캠퍼스로부터 안정감을 빌려옴
- 재정적으로 압박 받은 캠퍼스는 풍부한 캠퍼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음

- 교수의 잠재적 가능성이 단일 캠퍼스보다 더 큰 대학 체제 속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함

② 캠퍼스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준거

- 학문적인 협동 프로그램은 어느 캠퍼스와도 중복을 피함
- 다양한 캠퍼스별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평가·관리함
-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더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것,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 줄여야 할 것, 그리고 없애야 할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야 함

③ 새로운 대학 캠퍼스의 신설 준거

- 산업체가 위치한 곳에 자리할 것
- 통학상 불편함이 없는 곳
- 교수·학습 환경이 마련된 연후에 신입생을 선발할 것
- 도서 벽지 혹은 산간 내륙 지역에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으로 고등교육을 실시할 것(Kerr, 1982, p. x; Lee & Bowen, 1975, pp. 2~14, 16, 30, 32, 33).

* 서영석, "대학 분교, 무엇이 문제인가", 경정문화, 1986.5, pp.375~383.

"뉴스의 광장: 서울 12개대 지방 캠퍼스", 조선일보, 1987.5.19(화), 10판, 5면.

"지방자치제", 조선일보, 1987.7.2(목), 16판, 5면.

김병희, "동요하는 대학 지방캠퍼스", 신동아 30(7), 1987.7, pp.396~403.

75, 138, 140)*

이와 같은 준거에 의하여 생성·발전된 미국의 멀티캠퍼스는 캠퍼스간의 관계 형성이 대등한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양분된다(Kemerer, 1976, pp.72~3; Lee & Bowen, 1975, pp.13, 74, 75).

본교와 분교와의 관계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horizontal multicampus는 single campus들과의 관계가 대등함을 의미한다. 그 예로 Rutgers University가 Camden, Newark, New Brunswick의 세 대학 캠퍼스를 받아들여 멀티캠퍼스로 출발·발전한 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규모와 교수의 학문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대등하게 본교-분교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캠퍼스간에 차이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 나간다. 즉 University of Texas의 Austin Campus에는 의학 및 보건 분야의 중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El Paso Campus에는 광·공업 계열의 전공 영역이 오래 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등한 관계의 유지는 캠퍼스간의 위치, 학생 규모, 교수의 학문적 배경, 프로그램의 특성 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한편, 본교와 분교와의 종속적인 관계는 수직적·주종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싱글 캠퍼스간에 형성된 관계가 Vertical Multicampus임을 뜻한다. 즉 대학원이 있는 캠퍼스, 대학원이 없는 캠퍼스, 초급(전문)대학 캠퍼스, 직업·기술학교 캠퍼스와의 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캠퍼스별 관계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원이 없는 대학, 초급대학, 직업·기술 전문대학을 총괄한다기보다 기술 지원과 자문을 하여 준다. 또한 University of Wisconsin은 13개의 4년제 대학과 14개의 2년제 대학을 병합하였는데, 이들의 각각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멀티캠퍼스이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박사과정을 개설한 Madison 캠퍼스와 1956년 이후에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Milwaukee 캠퍼스와 1971년에 통합한 Wisconsin State University와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나머지 대학과는 종속 관계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멀티캠퍼스 체제에서 한국의 지방 분교가 안고 있는 문제 추출의 기준은 개괄적인 범위에서 볼 때에 아래와 같다.

- 분교가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 교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분교만이 갖는 교수 환경
-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이중 설치·운영에서 파생되는 프로그램의 중복
- 지역 사회의 지원 불가능성
- 분교 환경의 적응 여부

2. 韓國의 地方分枝

지방대학과 다르게 분교**는 지방 분교와 서울 분교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소재 대학교의 지방 분교는 중앙대학교 이리 분교(박수근, 1981.9.13)와 연희대학교 부산 분교***가 6·25 이후에 설립·운영되었으며, 한때 승전대

* 이와 같은 세 가지 준거에 의하여 설립된 멀티캠퍼스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Los Angeles, San Diego, Santa Cruz, Santa Barbara;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Rolle, St. Loui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at Hunter, Brooklyn, Queen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Binghamton, Buffalo, Stony Brook;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Greenboro, Raleigh;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l Paso, Arl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Milwaukee, Green Bay, Stout 등이다.

** 교육법 시행령 제114조 2항에서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제도적인 근거 이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 연희대학교 부산 분교는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1959년에 부산 연세 실업초급대학, 1963년에 연세대학교 가정대학으로 분교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2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서울 본교 3학년에 수학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서울 본교 교수의 부산 분교 출강 제도가 실시되었었다(연세대학교 백년사 편찬 위원회, 1985, 제1권, pp.452~453; 제2권, p.85).

학교 대전 분교도 있었으나(박수근, 1981. 9. 13) 지금은 숭실대학교와 한남대학교로 분리·독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 분교는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 인구의 서울 전입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재원의 대부분이라는 사학의 속 사정에 의하여 1970년대말경부터 설립되었다(서영석, 1986, p. 375). 정부는 지방 분교를 청주 지역을 포함하는 대전권, 이리·군산의 두 시를 포함한 전주권, 송정·나주를 묶은 광주권, 진주·창원을 묶은 마산권, 구미·경산을 묶은 대구권에 설립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잇따른 사학의 요청에 따라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 서울 통학이 가능한 정부선상에 지방 분교가 밀집되고 있다(김병희, 1987, p. 398).

한편 지방 분교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교는 제외되었다.

● 서울 지역 소재 대학교 중에서 대학 본부가 위치한 캠퍼스의 어느 학과와도 다른 학과만으로 이루어진 분교는 제외되었다. 즉 상명여자대학교 천안 분교, 서울대학교 수원 분교, 성균관대학교 수원 분교의 각 캠퍼스에는 11, 15, 23 개의 학과만으로 본교와 중복되지 않고 있으며, 2, 2, 4 개 단과대학으로 편성되어 있다(문교부, 1988 학년도 전국 대학교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참조).

● 시·군 지역 소재 대학교의 서울 분교는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경기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서울 분교이다. 이들 두 대학교의 서울 분교에는 야간 강좌만이 개설되어 있으며 동일 단과대학 안의 중복되는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 명지대학교 서울 분교의 경우 독립된 하나의 단과대학이 두 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으나, 나머지 9 개 학과는 용인 본교와 중복되며, 경기대학교는 11 개 학과 모두가 수원 본교의 학과와 동일하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정한 지방 분교는 서울특별시에 대학 본부가 있는 캠퍼스의 학과와 중복되는 학과가 있는 것에 한정되었다. 이는 건국대학교 충주, 경희대학교 수원, 고려대학교 조치원, 단국대학교 천안, 동국대학교 경

주, 연세대학교 원주, 중앙대학교 안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그리고 한양대학교 안산 분교 등이다.

한편, 이들 지방 분교의 발전 과정을 교명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역의 이름이 그 지방 분교의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충주 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분교 등이다(건국대학교 요람 1986~'87, 외대 일람 1986~'87).

둘째, 일정 연한이 지나면서 지방 분교의 대학 이름이 지역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고려대학교 조치원대학,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등이 그 예다(고려대학교 일람 1986, 동국대학교 요람 1986).

셋째,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81~'84년 사이에 지방 분교가 위치한 지역명을 캠퍼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원주대학은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로 명명하게 되었다(연세대학교 문리대학·경법대학, 1986, 학교 안내).

이와 같은 교명 변경에 따라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적게는 40명에서 많이는 800명으로 시작된 지방 분교가 불과 8~9년 동안에 상당한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분교를 학생, 학과, 대학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뒤의 <표 1>과 같다.

첫째,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졸업 정원 신입생이 100명 미만인 곳은 연세대 원주 분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한국외국어대 용인 분교, 500명 이상은 한양대 안산 분교이며, 그 나머지는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다.

둘째, 1988학년도 신입생(졸업 정원)의 증가 경향은 1,000명 미만이 고려대 조치원과 연세대 원주 분교이며, 2,000명 이상은 단국대 천안과 한양대 안산 분교이다. 그리고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은 건국대 충주와 한국외국어대 용인 분교이고, 경희대 수원, 동국대 경주 중앙대 안성 분교는 1,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다.

셋째, 본교와 중복되지 않은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이 분교에 따라서 적게는 1개 대학, 많

〈표 1〉 지방 분교의 학생, 학과, 대학

(학생 수 : 입학 연도별 졸업 정원)

대학교	분 교	설 립 연 도	학 생 수				학 과 ¹⁾ (1988)			단 과 대 학 ²⁾ (1988)		
			설 립 당 시	1981	1984	(1988)는 본교 수	계	중복	별개	계	본교	본교
건 국	총 주	'80	400	700	900	1,250(2,590)	36	25	11	15	10	5(0)
경 회	수 원	'79	450	1,050	1,560	1,990(1,940)	33	9	24	17	11	6(2)
고 려	조치원	'80	400	760	760	920(3,610)	17	13	4	12	9	3(0)
단 국	천 안	'78	350	1,610	1,830	2,140(1,810)	42	16	26	13	6	7(4)
동 국	경 주	'79	400	1,040	1,260	1,530(2,180)	26	16	10	15	9	6(2)
연 새	인 주	'78	40	510	690	850(3,610)	16	11	5	15	11	4(1)
중 앙	안 성	'79	400	1,000	1,665	1,955(2,165)	37	7	30	15	8	7(5)
한 국	용 인	'80	300	600	1,070	1,360(1,730)	29	15	14	10	6	4(1)
외 국 어	안 산	'79	800	1,600	1,860	2,040(3,000)	35	23	12	16	11	5(0)

- 1) 학과는 분교에 한정되며 '중복'은 본교의 학과와 동일함, '별개'는 본교의 학과와 다른 것을 의미함.
 - 2) 단과대학은 본교와 분교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계'란에 있어 부분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단과대학이 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이과대학에 소속되었을 경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제외되었다. 분교의 단과대학에 표기된 () 안의 수자는 본교의 학과와는 별개의 학과단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을 뜻함.
- (자료) 문교부, 1988학년도 전국 대(교)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미간행 유인물),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8815호(1977.12.31),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290호(1979.1.18), 대학 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9782호(1980.2.23),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0223호(1981.2.28),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1983.12.30).

계는 5개 대학까지 있으나, 건국대 총주, 고려대 조치원 그리고 한양대 안산 분교는 모든 단과대학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葛藤 誘發의 要因

분교와 본교와의 갈등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 한국의 분교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분교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제한 당하는 교수 조건, 캠퍼스별로 중복된 동일 학과의 분리·운영, 지역 사회의 참여 불가능성, 분교교육에의 기대 충족 여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 分校 環境에 대한 不適應

지방 분교의 취락 환경은 생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지방 분교는 내륙 지역, 산간 외진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외부와 단절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서영석, 1986, pp.376~80). 기존 대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도 아니며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으며,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나 산학협동이 가능한 위치도 아닌

곳에 지방 분교의 상당 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이나 통신에 의한 원격 학습(distance learning)의 대상 지역에 주간 전일제 출석 수업을 요구하는 정규 대학의 지방 분교가 생겨난 실태이다. 이는 심각한 갈등 현상을 캠퍼스 환경 적응의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도 외지고 황량한 곳에 자리한 지방 분교는 분교가 자리한 지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입학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분교 캠퍼스에는 금요일 오후에 학생 수가 매우 많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월요일 새벽에는 대단한 교통 혼잡을 겪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주중의 저녁 시간에는 장거리 통학생으로 인하여 학생이 상당 수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분교 캠퍼스의 학생 공동화 현상은 저녁이나 주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입생에 의한 持入文化와 재학생의 실익은 無定型의 文化에다 지리적인 취락 환경(settlement environment)의 요인까지 겹

쳐서 대학인으로서의 전문화(specialization)와 다양성(diversity)과 협동(cooperation)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분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은 광활한 캠퍼스의 地籍 시설에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대한의 복지 시설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즉 현재의 다목적 단일 건물 몇 동 외에 은행, 보건소, 우체국, 약국 그리고 여가 선용을 위한 오락실, 수영장, 음악관, 체육관 등의 새로운 人造 환경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기에 이른다. 또한 현재의 기숙사에 추가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분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증원·증과를 전제로 할 경우, 분교 주변의 지역 사회에서 취약이 형성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2) 制限 당하는 教授 條件

교수가 분교에서 교수 행위를 할 경우 무엇이든 알 수 없는 상대적 제한성을 느낀다.

즉 분교 교수의 교수 행위라 함은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야기되는 각종 행동을 뜻한다. 강의 준비, 강의, 출제, 시험 감독, 채점, 평가 기록을 포함하여 우편함 점검, 전화 수신, 자료 복사, 연구실 부재시의 연락 업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적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교수는 교수에 관한 업무와 잡무를 교수 혼자서 맡아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분교에는 대학원이 없으며 분교와는 중복되는 동일 학과라 할지라도 분리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불운하게도 분교에 근무하기 때문에'라고 다소 자탄 섞인 불만으로 표출된다. 분교의 학과별 전임 교수 부족으로 인하여 전공 분야 이외의 유사 영역도 강의하여야 되며, 나아가서 다인수 학생 지도에 임하여야 되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게 된다. 특히 지방 분교에 입학한 재학생에게 서울 본교의 학생 수준으로 학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교수의 노력은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같은 교재 활용과 동일 교과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편 교수의 역할은 고등교육의 주요 기능에 해당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구와 교육과 봉사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분교의 교육은

그 대상이 학부 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대학원이 없어 교수 활동 지원이 미비하며 재학 조교가 교수 활동에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험 실습을 요구하는 조교의 전임성을 계속 요청하지만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 학부 학생만의 교육은 학문적 환류나 계속적인 학문적 정진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대학 교수가 기여할 수 있는 봉사 기능은 분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서울 편중의 봉사요구로 인하여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또한 지방 분교의 교수 지원 체제는 일반적으로 1부총장, 학장, 처(부)장, 학과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분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아직 부총장제가 없는 곳도 있고 두 대학에 한 분의 학장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교의 처장급에 다음 가는 부장이 있어 교무, 학생, 총무 혹은 사무부장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처장 제도가 있는 분교는 비교적 학생 규모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이며 동등한 교무위원급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본교 교수가 분교 학장으로 임명되어 학사 행정을 총괄하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분교와 본교의 해당 학과별 교수 분포를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에 한정하여 분석하면 뒤의 <표 2>와 같다.

즉 동일 학과의 캠퍼스별(서울과 매지) 교수 규모의 대비 분석이다. 그러나 소속 학과가 없는 교양 및 교직 교과 전임 교수는 캠퍼스별·학과별 비교 분석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매지 캠퍼스의 전체 교수 규모에는 포함된다.

첫째, 같은 학과를 기준하여 볼 때에 그 분포는 서울의 29.6%(40 : 135)이다.

둘째, 매지 캠퍼스의 문리대학은 서울의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과 이과대학(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해당 학과 전임 교수의 25.6%(20 : 78)이다.

세째, 매지 캠퍼스의 경법대학 4개 학과(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전임 교수는 서울의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의 해당 학과 교수 규모의 22.8%(13 : 57)이다.

네째, 매지 캠퍼스의 직급별 전임 교수는 서울의 해당 학과 교수에 비하여 교수는 6.2%(6 : 97), 부교수는 52.9%(9 : 17), 조교수는 75.0%

〈표 2〉 계열별·직급별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 교수 분포

1987 매지 분교 교수
1986~'87 서울 본교 교수

구 분	계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박 사		석사	학사	비 고	
		교수	명예교수	과외				국내	국외				
계	40/135	6/97	2/...	1/...	4/...	9/17	15/20	3/ 1	24/46	16/84	3/1	2/ 4	
교양·교직	7/ ...	2/...	-/...	-/...	2/...	-/ -	1/ -	3/...	3/...	1/...	-/...		부총장, 학장, 극사, 철학, 기독교윤리, 체육, 교직포함
문 리 대	20/ 78	4/60	2/ -	1/...	1/...	6/ 9	6/ 8	-/ 1	12/35	6/38	-/ 1	-/ 4	
계 인 문	8/ 30	1/21	2/ -	1/...	1/...	2/ 5	1/ 3	-/ 1	5/13	1/12	-/ 1	2/ 4	국어·독문학과·영어영문학과
열 자 연	12/ 48	3/29	-/ -	-/ -	-/ -	4/ 4	5/ 5	-/ -	7/22	5/26	-/ -	-/ -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
경 비 대	13/ 57	-/37	-/ -	-/ -	1/...	1/ 8	9/12	2/ -	9/11	7/46	2/ -	-/ -	
계 상 경	8/ 37	-/19	-/ -	-/ -	1/...	-/ 7	5/11	2/ -	6/ 3	5/34	2/ -	-/ -	경제학과·경영학과
열 정 법	5/ 20	-/18	-/ -	-/ -	-/ -	1/ 1	4/ 1	-/ -	3/ 8	2/12	-/ -	-/ -	행정학과·법학과

〈참고〉 ...미상, - 해당 없음.

〈자료〉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 1986~'87, 1986.3(미출판 유인물).

연세대학교 대학 안내 1987, 1987.2, pp.51~52, 54~57, 62~63.

(15 : 20)이다.

다섯째, 매지 캠퍼스 전임 교수의 국내·외별 학위 취득 분포는 60%(24명) 대 40%(16명)이다. 그러나 서울 캠퍼스는 매지 캠퍼스에 설치된 동일한 10개 학과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국내외의에서 취득한 학위 분포는 35%(46명) 대 65%(84명)이다. 한편 교수 조건의 개선을 위한 지방 분교 교수의 요구 사항은 본교 대학원 강의 담당, 분교의 학과별 교수 요원 증원, 조교 제도 보장, 원활한 교수 행위를 위한 실험실습 자재의 시설 확보 등이다.

3) 캠퍼스별로 중복되는 同一學科의 分離 運營

학과 편성은 지방 분교의 제도적인 변인 중 학생 규모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표 1〉처럼 단국대학교 천안 분교는 본교보다 단과대학이 하나 더 많으며 본교와는 별개의 학과만으로 이루어진 4개 단과대학이 있고, 학생 수도 본교보다 더 많다. 중앙대학교 안성 분교는 7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본교와 중복되지 않는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희대학교 수원 분교는 학생 수가 본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단국대학교 천안, 중앙대학교 안성, 경희대학교 수원 분교는 본교와 대등한 관계의 캠퍼스(horizontal multicampus) 체제로 나아갈을 의미하는 반면에, 고려대학교 조치원과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는 아직도 종속적인 복합 캠퍼스(vertical multicampus) 체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학과가 본교와 분교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분교 학생이 본교 캠퍼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학사 내규는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생은 계절 학기 수업을 제외하고는 소속 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연세대학교, 교무처, 1987, 이수 과목과 수강 신청란 참조)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사 내규는 같은 대학교의 지방 분교와 본교와의 관계가 본교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대학교보다도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예로 대학간 협력 체제인 학점 교환제가 대학원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와 숭실대·중앙대·인하대에서 각각 실시되어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 보완적 활용, 시설·실험 기구·도서의 상호 활용, 학문의 개방과 상호 협동의 증진, 폭넓은 교우 관계, 사제간의 관계 개선 등이 이루어

어지고 있다(劉仁鍾外, 1983, pp.32~47).

한편 고등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학점 자유 취득제, 공동 강좌제 실시, 전임 등록생 기한제(residence requirement period)(교육개혁 심의회, 1987, p.63)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계절 학기만이 아니라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의 경우와 실험 실습 기자재가 미비한 분교의 사정에 비추어 학과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본교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연구 되면 분교측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겠다. 또한 두 캠퍼스에 같은 학과가 있는 경우 분교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문리대와 경법대 졸업생이 1987년 2월까지 603명이었는데 이들의 2.2%에 해당되는 13명이 본 대학원에 진학하였기 때문이다(연세대학교 문리대학·경법대학 교무과, 대학원 진학 현황, 1987).

이와 같이 캠퍼스별로 동일 학과를 중복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두 캠퍼스에 동시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분교와 본교간에 있어 같은 학과의 운영은 협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평가·관리의 공동 수행과 동일 학과의 캠퍼스별 전임 교수의 공동 참여가 요구된다.

4) 地域社會의 參與 不可能性

분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지원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분교에 입학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 분교가 위치한 지리적인 취약 환경은 산업체가 있는 곳도 아니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분교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해당 지역 분교에 대한 입학 선호도가 높아져야만 분교는 그곳 지역 사회에서의 안정된 성장을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85학년도와 서울 출신 학년별 학생 분포는 4학년 4.5%, 3학년 7.3%, 2학년 10.3%, 1학년 14.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7학년도의 경우는 신입생 전체의 67.5%가 서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연세소식, 1987.3, pp.6~7;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 1986~'87, 1986.3.1, p.19).

이러한 사실은 강원도 원성군 홍업면 매지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문리대와 경법대에 원성군, 원주시, 횡성군 등에서 입학 가능한 학생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지방일수록 우수 학생을 서울 지역으로 지원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망과 고등학교 진학 지도 담당 교사가 그들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학으로 지원을 권유하는 경향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지방 분교 졸업생 혹은 서울 본교 출신자가 해당 지역의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집(입학) 대상자의 구성비에서 볼 때에 지방 분교는 지역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사회의 경제, 교통,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分校教育에의 期待 充足與否

한국의 지방 분교는 서울 본교와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과의 상관 관계에 놓여 있다. 9개 지방 분교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종합 및 단과대학 출신자의 졸업 이후의 진로 비교를 통해 분교 환경에의 적응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분교 환경에의 부적응 경향은 재학중 제적이라는 변인에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묶어 분교교육에의 기대 충족 여부를 살펴 본다.

(1) 졸업 이후의 진로

분교 학생의 졸업 이후 진로는 취업, 진학, 유학, 군입대, 미취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9개 지방 분교, 서울과 지방의 종합 및 단과대학의 진로 현황을 살펴 보면 뒤의 <표 3>과 같다.

첫째, 지방 분교 졸업생의 취업률(61.4%)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73.5%)와 대학(63.4%)에 비하여 낮으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59.7%)와 대학(54.0%)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진학은 표의 취업률 경향과 비슷하다. 즉 지방 분교 졸업생의 진학률(5.2%)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12.6%)와 대학(7.2%)보다 낮고 지방의 대학교(4.8%)와 대학(4.9%)보다 높다.

셋째, 지방 분교 졸업생의 해외 유학은 지방의 대학(0.1%)과 같은 수준이며, 서울(0.8%) 및 지방(0.4%)에 있는 종합대학교와 서울에 있

〈표 3〉 진로 현황(1986)

단위: %, ()는 사람 수

대 학	졸업생	취업 ⁽¹⁾		진학	유학	군입대	미취업	
		전체	순수					
지방 캠퍼스	건국대·충주 ⁽²⁾	100(1,038)	53.0	35.7	7.3	0.2	9.7	47.0
	경희대·수원 ⁽²⁾	100(1,222)	74.5	45.7	6.9	0.2	21.8	25.5
	고려대·조치원	100(369)	78.3	44.2	5.4	0.0	28.7	21.7
	단국대·천안 ⁽²⁾	100(1,570)	44.1	32.5	4.1	0.3	7.3	55.9
	동국대·경주	100(945)	55.1	37.9	2.8	0.2	14.8	44.3
	연세대·원주	100(398)	87.7	58.0	9.3 ⁽³⁾	0.0	20.4	12.3
	중앙대·안성	100(1,409)	45.1	33.4	3.1	0.0	8.7	54.9
	한국외국어대·용인 ⁽²⁾	100(769)	68.4	46.8	7.2	0.5	9.9	31.6
	한양대·안산 ⁽²⁾	100(1,680)	77.1	48.4	6.2	0.0	22.5	22.9
소 계	100(9,400)	61.4	40.8	5.2	0.1	14.7	38.6	
종합 대학	서울 ⁽⁴⁾	100(40,362)	73.5	48.5	12.6	0.8	11.9	26.5
	지방	100(56,898)	59.7	44.0	4.8	0.2	10.7	40.3
단과 대학	서울	100(3,048)	63.4	46.5	7.2	0.4	9.4	36.6
	지방	100(14,985)	54.0	37.1	4.9	0.1	11.9	46.0
여 자	대	100(11,975)	32.8	26.4	6.1	0.3	...	67.2
개 방	대	100(5,006)	78.7	73.9	4.7	0.0	0.1	21.3
총	계 ⁽⁵⁾	100(141,674)	61.6	43.9	7.3	0.3	10.1	38.4

(1) 취업률의 '순수'는 일반 기업, 교직, 특수직, 금융기관, 공무원, 직업 부분이 포함됨.

(2) 1986년 8월 졸업자 포함

(3) 연세대학교(원주 캠퍼스에는 일산 캠퍼스와 매지 캠퍼스가 있는데 후자에 속함) 문리대학, 경법대학 교무과의 졸업자 및 대학원 진학 현황에 의하면 1985.2.8; 1986.2.8; 1987.2월에 졸업자 수 603명 중 연세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 진학한 졸업자 수는 국어국문학과 1명, 영어영문학과 1명, 수학과 3명, 물리학과 1명, 화학과 4명, 생물학과 2명, 경제학과 1명, 경영학과 0명, 행정학과 0명, 법학과 0명, 계 13명이다. 이는 603명의 2.2%이다.

(4) 서울 지역 소재 종합대에는 경기대와 명지대가 포함되어 있음.

(5) 교육대학 및 4년제 각종 학교는 원칙적으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전국 4년제 대학(교) '86학년도 취업 현황, 리크루트 6(56), 1987.5, pp.57~61.

는 단과대학(0.4%)보다 낮다.

네째, 군입대자는 지방 분교 졸업생(14.1%)이 전국 대학(교)의 평균(1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 분교가 당해 연도 졸업생의 입학률이 높음을 암시한다.

다섯째, 지방 분교별 졸업생의 취업률은 연세대 원주(87.7%), 고려대 조치원(78.3%), 한양대 안산(77.1%), 경희대 수원(74.5%) 캠퍼스만이 7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는 진학률(11.2%)이 매우 높다.

(2) 재학중 제적

입학한 대학에서 학생의 신분이 계속되거나 유예될 수 없는 제적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생 자신의 뜻에 따라 제적된 사유에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이 있다. 그러나 미등록이나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중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와 '복학 절차 및 기간을 잘못 알아서' 일 경우에는 자의성 제적 사유에서 배제될 수 있다.

둘째, 학생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적된 사유에는 입학 취소, 성적 불량, 징계에 의한 제적 등이 있다.

셋째, 학생 자신이나 대학 당국도 바라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제적은 사망이다.

이와 같은 제적 사유의 세 가지 해석 준거에

맞추어 1981년 1학기부터 1987년 1학기까지의 기간중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에서 제적된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연세대학교 원주대학 교무과 제적자 명단, 1981.1~1983.1; 연세대학교 교무처 학적과, 제적자 명부, 1983.2~1987.1).

- 제적된 학생의 총 수는 435 명이다.

- 학생 자신의 뜻에 따라 제적된 사유별 배분은 제적자 435 명 중 미복학 141 명(32%), 자퇴 96 명(22%), 미등록 74 명(17%) 등이다.

- 학생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적된 수는 제적생 전체의 약 1/4에 해당되는 성적 불량 121 명(28%)이다. 그러나 약간 명의 입학 취소도 있다.

- 불가피한 제적 사유인 사망은 2 명이다.

특히 435 명의 제적자 중에서 96 명의 자퇴자(22%)와 121 명의 성적 불량 제적자(28%)는 지방 분교가 안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다. 전자는 신입생이 등록과 동시에 휴학하거나 再修 이후 타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분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적 가치관에 자기 자신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4. 葛藤 解消의 方案

분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고 그곳 지역 사회 발전에 분교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당해 지역 사회의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분교 학생 역시 재학중에는 매일 혹은 주 단위로 통학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그곳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 대학생의 인지 능력과 캠퍼스 士氣가 서울 지역 대학생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학업 성취에 있어 실패의 인과 귀속 성향이 학생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는 내부적 통제 변인보다 내부 통제가 불가능한 과제의 난이성과 교수의 평가 탓으로 돌리는 현상(황정규, 1982, pp. 37, 38, 65)이 지방 분교에도 일반화된다면 갈등 자체는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것보다 학습자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교교육의 방향 제시

를 갈등 해소의 측면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학보다 취업 위주의 교육으로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학문할 수 있는 길은 본 대학원 진학이어야만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개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둘째, 단위 분교별 독립 재산이 가능하도록 학과별 증원이 요청된다. 사학의 경우 학생 규모에 따른 교세가 현실인 이상 적정 규모의 증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학생 중심의 복지 시설은 물론 교수 환경 개선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신설 학과의 경우 대학교 전체의 특수성과 나아가서는 분교의 특색을 살려 분교와 중복되는 동일 학과는 억제됨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술대학, 약학대학, 낙농대학, 사범대학 등은 분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이 현재의 분교 설정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째, 캠퍼스별 동일 학과의 교수 요원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분리·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수 행위에 있어 균형과 조화 있는 연구·교육·봉사의 역능 부여는 적절한 부가 급부와 즐거운 작업 조건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특히 분교 교수의 교수 행위는 본교 교수와 등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대학원 강의에의 참여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어대학교 교수의 임용 상황은 분교가 있는 대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겠다.

다섯째, 분교 캠퍼스에 야간제 특수대학원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공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結 論

한국 분교의 실정은 본교에 버금가는 학생 자원을 지녔거나 집중적인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 독립 재산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분교는 경희대학교 수원, 단국대학교 천안, 중앙대학교 안성, 한양

대학교 안산 캠퍼스 등이다.

두번째 경우는 건국대학교 충주, 동국대학교 경주, 한국의국어대학교 용인 분교 등이다.

세번째는 고려대학교 조치원과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 중 매지 캠퍼스이다.

특히 세번째에 해당되는 분교의 경우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이 다급하다. 즉 도서관의 전공 분야별 장서 확보, 실험 실습을 그런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증축과 지원, 유사 학문의 근친 번식을 꾀할 수 있는 대학원 강의에의 제도적인 참여, 전임 조교제의 도입, 중앙과 지방의 학문적인 정보 교류를 위한 전산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한편, 봉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편의 제공, 분교와 본교간의 교수 교류제 실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외 프로그램(extramural program) 개설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결으로 분교교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분교교육의 결과가 취업 이외에 학사 편입을 통해 본교교육과 연계될 수만 있다면 동일한 학교법인 산하에 본교와 분리·독립된 대학교로 개편함이 좋을 듯하다.*

▣ 기초 자료 ▣

건국대학교 요람, 1986~1987.
 경희대학교 요람, 1986.
 고려대학교 일람, 1986.
 단국대학교 요람, 1985.
 동국대학교 요람, 1986.
 연세대학교 대학안내, 1986~1987.
 중앙대학교 요람, 1985~1986.
 의대 일람, 1986~1987.
 한양대학교 요람, 1986.
 성균관대학교 요람, 1986~1987.
 서울대학교 요람, 1985~1986.
 경기대학교 요람, 1985~1986.
 명지대학교, '85 요람.
 문교부, 1988 학년도 전국 대학(교) 모집 단
 위별 입학 정원(미간행 유인물).
 연세대학교 학생 명부, 1981.1~1987.2.
 연세소식, 1987.3.

연세대학교 교무처, 제적자 명부, 1983.2~
 1986.2.
 연세대학교 매지 캠퍼스, 졸업자 현황, 1984~
 1986.
 연세대학교 원주대학, 제적자 명부, 1981.1~
 1983.1.
 연세대학교 문리대학·경법대학 교무과, 대학
 원 진학 현황, 1987.

▣ 참고 문헌 ▣

교육개혁심의위원회,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
 과 전략", 1986.7.15 의결, 1987.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001호(1986.12.
 1).
 金炳熙, "동요하는 大學: 地方캠퍼스", 新東亞
 30(7), pp.396~403.
 朴秀根, "大學分校의 編制에 관한 研究", 서
 울: 東國大學校 1981(未刊行油印物).
 徐永錫, "大學分校, 무엇이 문제인가", 政經
文化, 1986.5, pp.375~383.
 劉仁鍾外, 大學間 協力體制에 관한 研究, 서
 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3.
 朝鮮日報, "뉴스의 廣場, 서울 12 개大 地方캠퍼
 퍼스", 1987.5.19(火), 10版, 5面.
 _____, "지방자치제", 1987.7.2(木), 16版,
 5面.
 黃禎奎, "大學環境의 社會·心理的 特徵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2.
 Clark, B.R., *The Higher Education System*,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83.
 Eurich, N.P., *Systems of Higher Education*
in Twelve Countries, New York: Praeger
 Pub., 1986.
 Kemerer, F.R. & Baldrige, J.V., *Union on*
Campu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 1976.
 Kerr, C.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82.
 Lee, C. & Bowen, F.M., *Managing Multi-*
campus Systems, San Francisco: Jossey-
 Bass Pub., 1975.